

# 고흥군 '군민소득 3000만원' 프로젝트 가동

현재 1인당 GRDP 2020만원  
2022년까지 '3000시대' 달성  
군민 실질소득 향상 대책 마련



고흥군은 최근 송귀군 고흥군수 주재로 '군민소득 3000 시대 종합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군민소득 3000시대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선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군민소득 3000 시대 종합계획 보고회'를 갖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군민소득 3000 시대는 2016년 기준으로 고흥군민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2020만원을 2022년까지 300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고흥군의 1인당 GRDP 2020만원은 전국 1인당 GRDP의 63%, 전남도 1인당 GRDP의 53% 수준으로 군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마련한 프로젝트는 1차산업 위주인 고흥의 산업여건을 고려하면서도 2, 3차산업까지 소득을 높여 모든 군민이 고르게 잘사는 고흥을 만들고자 준비했다.

군은 이를 위해 최근 송귀군 고흥군수 주재로 균형 성장에서 '군민소득 3000

시대 종합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종합계획의 3대전략, 8대 추진과제와 22개 시책 보고에 이어 열린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군은 이번 종합계획 보고회와 내년 2월

계 열린 예정인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상반기부터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송귀군 고흥군수는 "군민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책은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앞당

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어렵지만 고흥의 현실과 여건을 직시하고 계획을 탄탄하게 완성해 2022년까지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iu@

## 곡성지역 귀농·귀촌 가구 만족도 높다

792가구 실태조사... "만족" 33.7% "불만족" 14.6%

곡성지역으로 귀농·귀촌한 가구의 만족도가 불만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3일 까지 실시한 곡성군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최근 3년 간(2015-2017년) 전입한 귀농·귀촌 792가구의 가구주와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곡성군은 보다 효과적인 조사 및 분석을 위해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귀농·귀촌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33.7%로 불만족 14.6%

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부문별로는 주거환경, 이웃관계, 건강 부문에서는 만족도가 높았으나 경제 여건과 지역인프라 등에서는 비교적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곡성군으로 전입하기 전 거주지는 광주와 서울, 경기 순이었으며 귀농·귀촌을 결정한 이유는 퇴직 후 전원생활이 2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입 후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한 귀농·귀촌인은 14.5%로 조사됐다.

갈등의 이유는 선입견과 텃세가 40.9%였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 고흥군, 내년 '청년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고흥군은 28일까지 '2019 고흥군 청년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자는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며 모집인원은 40명으로 선착순이다.

청년 창업 아카데미는 다음해 1월10일부터 고흥문화회관 승선실에서 총 7회에 걸쳐 운영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고 우수 수강생을

선발해 창업지원금도 지원한다. 교육 후에는 중소기업청 공모와 연계해 전문가 상담 등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다.

강의 내용은 청년 창업 지원사업 및 성공 사례, 성공하는 청년 창업가 마인드 교육, 6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iu@



## 구례군, 화염사 상가 살리기 나선다

구례군이 관광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해 침체된 화염사 상가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화염사 지구는 과거 화염사 입구의 환경 오염으로 인해 1982년에 화염사에서 1.5 km 떨어진 곳에 집단시설지구로 조성됐다.

1986년에 윗상가 49개동이 신축되고 1991년에는 아랫상가 57개동이 들어섰으나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라 관광객이 줄고 인구 또한 감소되어 현재는 80%가 폐업한 상태다.

실제 화염사를 찾는 관광객은 2004년 172만8830명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44

만6078명으로 감소되며 위기가 현실화했다.

이에 군은 지난 20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화염사와 화염사 상가변영회, 지역 청년과 마을 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염사 상가지구 활성화 위한 거버넌스 구축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고 상생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을 펼쳤다.

앞서 군은 지난 14일에도 '2018년 공무원 정책연구 발표'에서 '화염사지구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김철우(오른쪽) 보성군수가 최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을 국가중요농업유산(제11호)으로 인증하는 인증서와 패를 전달 받았다. (보성군 제공)

## 보성군, 각종 대외 평가 50여건 수상 실적

보성군이 올해 각종 대외 평가에서 50여건의 수상실적을 기록했다.

24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한해 동안 중앙부처와 전남도 등이 주관한 각종 시책 평가 결과 32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간 분야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43건의 수상 기록을 세웠고, 1월 중순까지 시상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5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이 농업지원으로 보전·전승의 가치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되며 녹차 산업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

문화 관광분야에서는 보성제암산자연휴양림이 '2018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되며 관광산업의 강자로서 보성군의 위상을 알렸다.

이 외에도 2018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과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 수상 등 관광녹차수도 보성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재난안전평가에서는 '안전문화대상 최우수상'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는 등 군 단위 최초로 단일분야 6개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 분야에선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군부 1위), 5년 연속 대한민국 서비스만족 대상 (공공서비스 부문),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대상을 수상하며 "다기기는 행정, 능력 있는 행정"의 면모를 보였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러한 결과는 보성군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보성군 800여 공직자의 노력으로 가능했다"며 "새해에도 보성군의 저력을 온 나라에 알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 곡성군-곡성교육지원청 손잡고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 방안 논의

곡성군과 곡성교육지원청이 최근 지역 교육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를 협약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최초로 시도되는 미래교육협력센터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실현을 위해 군과 교육청이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해 구성한다.

미래교육협력센터는 새로 신축된 곡성 미래교육관 내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미래교육협력센터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교육경비 지원 및 집행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역할

을 수행하고 지역 교육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교육문제에 있어 교육지원청을 '지원'한다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곡성 지역 학생들이 저마다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양 기관과 학교와 마을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종택 곡성교육장은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행정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함께하는 희망 곡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고속도로에서 신의 한수**

피곤할 때 졸음쉼터에서 한숨 자는 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깜빡 졸음이 깜빡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 피곤할 때는 졸음쉼터를 찾아주세요. 잠깐의 휴식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킵니다.

전국 212곳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졸음쉼터 설치 후, 한해 고속도로 사고 건수 7% 이상 감소 / 사망자 수 32% 이상 감소 (2016년 말 기준)

ex 한국도로공사